

## 플로리다, 해수면 영향 평가 연구를 의무화한 건설 공공자금 조달법 마련

<https://archinect.com/news/article/150207607/public-projects-in-florida-to-require-sea-level-rise-impact-studies>

<https://www.constructiondive.com/news/florida-to-require-sea-level-studies-for-coastal-public-construction-projec/581552/>

<https://www.flsenate.gov/Session/Bill/2020/178/BillText/er/PDF>

<https://www.flsenate.gov/Session/Bill/2020/178/Analyses/2020s00178.ap.PDF>

플로리다는 지난 7월 1일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연안건축구역 내 건설사업에 대해 ‘해수면 영향 평가(Sea Level Impact Projection: SLIP)’ 연구를 의무화하는 건설 공공자금 조달법을 마련하였다.

약 2,173km에 달하는 해안선과 함께 낮은 고도를 가진 플로리다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하다. 이런 가운데 이미 1880년 이후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이 20~22cm 상승하였으며, 상승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이번 법안에 포함된 분석결과에서 2100년 해수면 상승 높이를 예상하였을 때 플로리다 남동부 지역의 상승 높이는 78.94~205.74cm(최저~최고)로,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 높이 42.67~83.82cm(최저~최고)보다 높게 나타난다. 플로리다주 인구의 76%가 해안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수면이 30.48cm만 상승해도 6만 5,000가구 12만 2,000명의 안전과 3,000억 달러(약 349조 500억 원)의 재산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

이에 플로리다에서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해안 구조물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사업 착수 전 체계적이고 학제적이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접근 방식을 활용해 구조물의 예상 수명 또는 50년 중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해안 홍수와 폭풍 피해로 인한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한 기간 중 연간 평균 홍수피해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대체 방안을 강구하며, 구조물에 미치는 피해뿐 아니라 구조물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비용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0년 동안 웹사이트에 공개되며, SLIP 연구에 주어진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구조물 건설을 중단하거나 구조물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공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상환 요청을 할 수 있다.



플로리다 해안가  
출처: shutterstock